

# 센터소식

## ❖ 센터 연구과제 외부 전문가 참여 현황

2006년 12월 15일 이후 연구과제 주요 전문가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기본연구과제 전문가 참여

#### ○ 아동패널조사: 「한국 영유아 종단연구」 예비조사

김승연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 박수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이택면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 수탁연구과제 전문가 참여

#### ○ 「표준보육과정 교육영상자료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

〈표준보육과정 교육영상자료 개발〉

김명순 연세대 교수 · 서원경 중앙청사어린이집 원장 · 우현경 성동구보육정보센터장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 · 한세갑 수원근로복지공단 교사

• 외부 공동연구진

〈표준보육과정 교육영상자료 개발〉

김혜금 동남보건대 교수

〈보육프로그램 개발〉

강정원 한국성서대 · 김명순 연세대 교수 ·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 ·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  
박찬옥 중앙대 교수 · 이미정 여주대 교수 · 이소현 이화여대 교수 · 최혜영 창원대 교수

#### ○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연구

김순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 이기섭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부회장  
최경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남부분회장

#### ○ 「유치원교육정책 홍보 사업」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이사 · 김영옥 OMEP(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장  
김재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 류우영 서울예대 교수 · 문미옥 한국유아교육학회장  
박희숙 멀티미디어콘텐츠기획 대표 · 서유현 서울대 교수 ·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 신의진 연세대 교수  
우남희 한국 마음 · 두뇌 · 교육협회장 · 정혜순 한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 황지현 서울노일유치원 교사

#### ○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김태경 전국 여성농업인센터 보육분과장 · 윤선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부장  
이재란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사무관 · 지성애 전남대 교수

## ❖ 센터 국제교류 현황

- 이옥 소장은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미국 국립아동가족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ren and Family), 피츠버그대학 국제교육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Education), 스탠포드대학 교육정책연구소(Institute for Research on Educational Policy and Practice)를 방문하여 센터와의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장명림, 문무경 연구위원은 2월 5일과 6일 양일간 이탈리아 피렌체 이노센티 센터에서 개최된 UNICEF 회의에 참석하여 UNICEF 보고서 ‘부유한 국가의 유아기 서비스(Early Childhood Services in Rich Countries)’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UNICEF 관계자 및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대표들과 KICCE 국제저널 발간을 비롯한 상호교류 방안을 논의하였음. 또한 장명림, 문무경 연구위원과 박수연, 최혜선 연구원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UNESCO 파리 본부를 방문하여 육아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초교육부장 Kenneth Eklindh와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 센터 동정

### ■ 창립 1주년 기념식 개최

- 본 센터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2006년 12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부부처 관계자와 관련 학회 · 단체 대표 등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 ■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 본 센터는 ‘육아정책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12월 27일과 2007년 1월 9일에 두 차례의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음. 1차 세미나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방안’ 과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방안’ 을 주제로, 2차 세미나에서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과제와 전망’ 과 ‘중장기 육아비용 지원계획 기대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을 주제로 담당 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